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글로벌 공급과잉과 국내 제조업 대응 방향

국내 OTT 산업의 위기와 대응방안

시멘트산업의 부담요인 확대 및 영향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글로벌 공급과잉과 국내 제조업 대응 방향	1
국내 OTT 산업의 위기와 대응방안	3
시멘트산업의 부담요인 확대 및 영향	7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9
--------------------	---

글로벌 공급과잉과 국내 제조업 대응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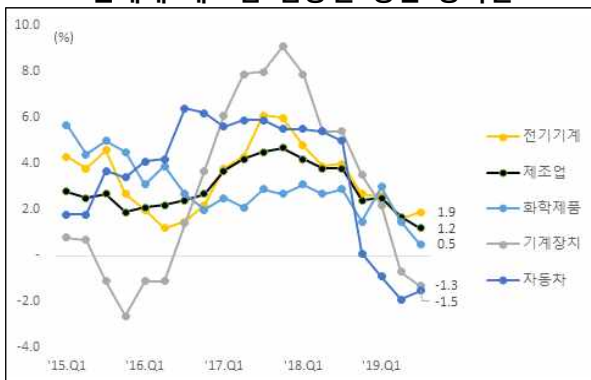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오세진 (ohsejin@kdb.co.kr)

- ◆ 전 세계적인 수요둔화, 공급측 구조조정 지연 등에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육성 강화로 인해 공급과잉이 심화되며 국내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지속 전망
- ◆ 신흥국 제조업 발달과 함께 핵심 소재 및 부품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국-신흥국간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핵심 소재 및 부품을 선진국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고부가 제품 영역을 확대하는 전략 모색 필요

□ 전 세계적인 수요둔화, 공급측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되며 전 세계 주요 제조업 생산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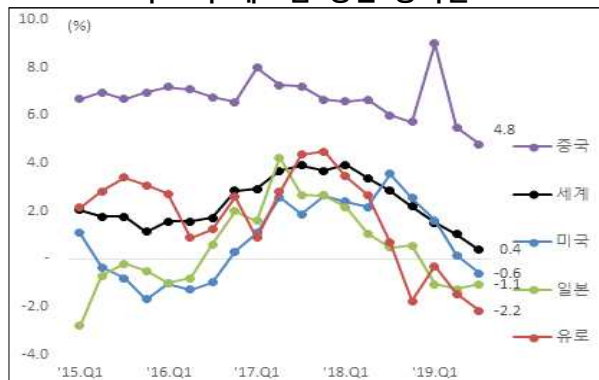
- 전 세계 제조업의 생산 증가율은 '17.4분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기계장치 등 전통 제조업의 생산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
 - 전 세계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17.4분기 4.7%에서 '19.3분기 1.2%로 하락
 - 동기간 자동차 업종은 5.5%에서 Δ 1.5%로, 기계장치 업종은 9.1%에서 Δ 1.3%로 하락
- * GM, 포드, 폭스바겐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생산감소에 대응하여 구조조정을 추진중 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노조의 저항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
- 국가별로 보면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모두 제조업 생산이 둔화세를 기록
 - 유로존의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17.4분기 4.5%를 기록한 이후 '19.3분기 Δ 2.2%까지 하락하였으며, 동기간 일본과 미국도 큰 폭 하락
 - 중국 역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타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

전세계 제조업 업종별 생산 증가율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각국 통계청, CPB

주요국 제조업 생산 증가율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UNIDO(UN 산업개발기구)

□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육성 강화에 따라 향후에도 제조업 공급과잉에 따른 국내기업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전망

- 재정확대, 양적완화 등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향후 일시적인 글로벌 수요 회복이 발생하더라도, 신흥국들의 제조업 육성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는 난망
-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신흥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수출 등 국내기업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 최종재 뿐만 아니라 중간재 수출 또한 신흥국들의 자국내 공급망 구축 노력 강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

*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 증가율: 19.8%('17년) → 13.8%('18년) → △12.0%('19.1~11월 누적)

신흥국 제조업 육성전략

국가	전략명	주요내용
중국	제조2025	2025년까지 핵심소재 자급률 70% 달성
베트남	베트남 산업발전전략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태국	태국4.0	자동차, 전기전자 등 10대 산업 육성
인도	Make in India	제조업 비중을 확대하여 지속성장 기반 마련

국내 제조업 매출 증가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우리나라 제조업은 기존의 저부가 제품 생산에서 벗어나 고부가 핵심 소재 및 부품 등을 생산·공급하는 선진국형 제조업으로 거듭날 필요

- 우리나라 제조업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 제품생산 위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신흥국의 제조업이 고도화 될수록 우리나라 제조업 입지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 제조업 부가가치율(2015): 한국 25.5%, OECD평균 30%, 미국 36.9%, 독일 34.8%, 일본 34.5%

- 그러나, 신흥국 제조업 발달과 함께 이들 국가에서 개발하기 힘든 기술집약적인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수요는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존 생산 노하우를 기반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틈새시장을 파고 들어, 핵심 소재 및 부품을 선진국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하며 고부가 제품 영역을 확대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

국내 OTT 산업의 위기와 대응방안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임 송 식 (ssim@kdb.co.kr)

- ◆ 국내외 OTT* 서비스 시장은 급성장중이나, 국내 OTT 기업은 글로벌 선도기업의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영향력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위기 상황임
- ◆ 이에, 미디어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내 OTT 서비스의 영향력 강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및 장기적인 산업재편이 요구됨

* Over The Top : '유선 케이블 셋톱박스를 넘어'라는 뜻으로, 드라마, TV방송 등 각종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OTT 서비스 시장은 국내외 모두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 국내외 영상미디어 시장은 기존 유선방송이 아닌, 스마트폰 기반의 OTT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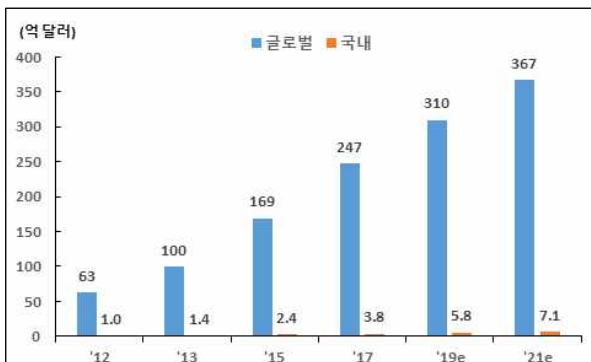
미디어 시장 트렌드

구 분	1세대 (지상파+방송 케이블)	2세대 (인터넷 케이블)	3세대 (OTT)
시청수단	TV	TV+셋톱박스(IPTV)	스마트폰
전송방법	지상파/케이블	인터넷(유선)	인터넷(무선)
미디어 형태	실시간	VOD	실시간+VOD
사업자	지상파 방송국/ 지역 케이블 사업자	인터넷 회선 사업자 (SKT, KT 등)	OTT 플랫폼 사업자 (유튜브, 넷플릭스 등)

- 특히, 최근 코드-커팅* 확대 추세로 인해 국내외 OTT 시장은 급격히 성장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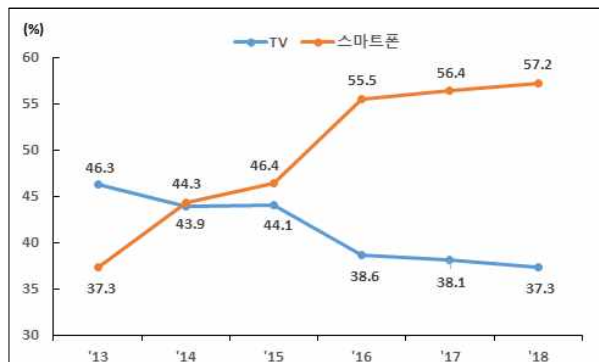
* Cord-cutting: 유료 케이블 방송 시청자가 가입을 해지하고 인터넷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현상

국내외 OTT 시장 규모 추이



자료 : MezzoMedial(2018), "메조미디어 2020 트렌드 리포트"

연도별 필수매체 인식 추이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18),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 세부적으로, OTT 서비스는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 가능하며, 양 시장 모두 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음

OTT 서비스 유형

구분	폐쇄형 OTT	개방형 OTT
주요 영상 유형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먹방, 여행, 일상 등
주요 제작자	방송사, 전문 영상 제작사 등	1인 크리에이터
영상 품질	상	중/하
선도 업체	Netflix(미국)	Youtube(미국)
국내 업체	Wavve, TVING	카카오TV, 네이버TV

□ (폐쇄형) 글로벌 OTT 시장은 경쟁 심화가 예상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글로벌 OTT 기업의 한국 진출로 국내 토종 폐쇄형 OTT 시장 잠식 가속화 우려

- 미국 폐쇄형 OTT 선도기업 'Netflix'의 신규 가입자 증가율이 '19년 7월 이후 감소하는 등, 글로벌 OTT 시장은 성숙기에 진입
 - 동시에, 기존 미디어 그룹들이 최근 독자적인 OTT 사업을 추진하면서 Netflix 앞 콘텐츠 제공을 중단하는 등 글로벌 OTT 시장경쟁 심화 예상

미국 OTT 서비스 현황

(단위 : 백만 명)

기업명	OTT 서비스	출시 시기	가입자수	주요 콘텐츠
Netflix		'98년	150	자체 콘텐츠 및 Third-party 콘텐츠
Apple		'19년 11월	10	Apple 오리지널 콘텐츠 및 150개 이상의 Third-party 스트리밍 앱
Disney		'19년 11월	10	Marvel, Star Wars 오리지널 시리즈, Pixar, 디즈니 고전영화
Warner Media		'20년 3월 (예정)	-	시트콤 Friends, Warner Bros, DC, CNN, TBS
NBC Universal		'20년 4월 (예정)	-	TV시리즈 The Office, 영화 Universal Pictures 및 DreamWorks

자료 : 언론보도를 참고하여 재정리, '20.1월 기준

- '16년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Netflix의 우리나라 유료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발 신규 OTT 서비스 또한 거대 자본력과 막강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 진출 추진중으로, 미국 OTT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우려

* (18.2월) 40만명 → (19.2월) 121만명, → (19.10월) 200만명

- 이에, 기존에 개별적으로 OTT 플랫폼을 운영하던 국내 기업들은 상호간 서비스 통합 및 협력 방식으로 미국 대형 OTT에 대응중

- 'POOQ'(지상파 3사)와 'oksusu'(SKT)간 통합 서비스 '웨이브(Wavve)'가 최근 개시되었으며, TVING(CJ E&M)은 JTBC와 업무 협약 체결

* 독자 운영중인 '왓차플레이'나 'Seezn'(KT) 또한 서비스 통합 또는 업무 협약 등의 형태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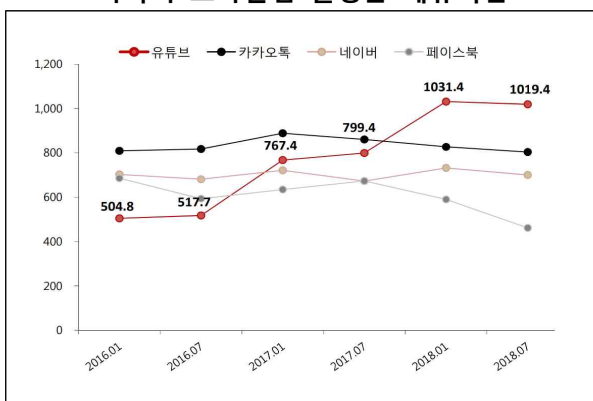
□ (개방형) 1인 미디어 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한 'Youtube'의 영향력 급증으로 인해 국내 토종 개방형 OTT 생태계 활성화가 미진한 상황

- 최근 1인 미디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개방형 OTT 플랫폼인 Youtube가 국내시장에서 절대적인 지위 확보

- 특히, 전문적으로 1인 창작자*를 지원·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인 'MCN (Multi Channel Network)'의 비즈니스 활성화로 1인 미디어의 수준이 크게 개선됨

* 크리에이터(Creator), BJ(Broadcasting Jockey), 인플루언서(Influencer) 등으로 지칭

미디어 모바일앱 월평균 체류시간



자료 : 닐슨코리아클릭(2018), "모바일 이용행태 조사"

국내 주요 MCN 업체 현황

업체명	주요 창작자
다이아TV	허팝, 보검TV, 감스트
샌드박스	도티, 명개명, 유병재, 온도
트레저헌터	김병지(축구), 배한호(한의사)
비디오빌리지	공대생변승주
캐리소프트	캐리, 캐빈, 루시

자료 : 각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정리, '20년 1월 기준

- 이에, '카카오TV', '네이버TV'는 지상파 3사 콘텐츠 독점 제공 등을 통해 차별화 시도중이나, 지상파 3사는 Youtube와 콘텐츠 제공 협약을 지속 추진하고 있어 국내 토종 플랫폼의 콘텐츠 경쟁력 약화 예상됨

- 미국발 국내 OTT 시장 잠식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토종 영상 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필요
- 국내 OTT 기업은 콘텐츠 경쟁력(폐쇄형 OTT 선도기업), 개방성(개방형 OTT 선도기업) 양 측면에서 글로벌 OTT 기업에 모두 열위인 위기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토종 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필수
 - 이에, 방송사, 영상 제작사, MCN 기업 앞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통해 고품질 콘텐츠 제작 활성화 필요
 - 토종 OTT 플랫폼의 독자적인 고품질 콘텐츠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K-pop 사례와 같이 미국 대형 OTT 기업 앞 국내 콘텐츠 수출 증대 기대
 - * 국내 OTT 기업 Wavve는 매년 500억 규모의 콘텐츠 제작비 투자 계획중이나, Netflix는 연간 9조 원(18년)에 달하는 콘텐츠 제작비를 투자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시,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장기적으로는 OTT 업계 내 적극적 M&A 유도를 통해, 국내에 분산된 영상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형태의 산업 재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멘트산업의 부담요인 확대 및 영향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황정환 (jhwang@kdb.co.kr)

- ◆ 최근 시멘트산업은 지역자원시설세 등 환경부담금 확대와 함께 일본 석탄재 수입 규제에 따른 국내 석탄재 대체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업계 영업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 이에 따라, 업체별 자발적인 원가절감 노력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통한 적절한 고통 분담 방안 도출이 필요한 시점임

□ 국회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시멘트 제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

* 환경보호, 지역주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16.11월 법안 상정(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 동 법안이 통과되면 시멘트 생산 1톤당 1,000원의 자원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며 시멘트 업계 전체로 볼 때, 약 530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온실가스 등 배출 부담금을 모두 포함하면 연간 1,740억원 이상의 환경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시멘트산업의 연간 환경부담금 예상 비용

지역자원시설세		온실가스 배출 (시행)	질소산화물 배출 (2020년 시행 예정)	기타 부담금	합계
석회석(시행)	시멘트(미정)				
30억원	530억원	230억원	650억원	300억원	1,740억원

자료 : 한국시멘트협회(2018) 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 정부는 '19.9월부터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 강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멘트 업계는 국내 석탄재로의 대체수급을 위한 추가 비용(운송비 등) 발생 예상

*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태우고 남은 재료 산업폐기물이지만, 시멘트산업에서는 필수 원료임

-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의 일환으로 석탄재 등 일본산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수입 규제 시행
 - 그동안 일본은 자국 석탄재 중 일부를 매립(매립비 1톤당 200,000원)하는 대신 국내 시멘트사에 보조금(보조금 1톤당 50,000원)을 지급하며 수출중
- 수입 규제에 따른 석탄재 수급문제는 국내 석탄재 물량으로 전량 대체 가능하나, 이 경우 운송비(운송비 1톤당 약 25,000원)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여 업계 전체적으로 약 576억원의 이익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국내 발전사들은 레미콘사 앞 석탄재를 판매하고 남은 석탄재에 대하여 자가 매립장에 매립처리중(처리비 1톤당 약 10,000원)

일본산 석탄재의 국내산 대체시 손익 분석

구분	일본산 수입(현재)			국산 대체시			비고
	물량(만톤)	단가(만원)	금액(억원)	물량(만톤)	단가(만원)	금액(억원)	
수익	128	약 2.0	256	-	-	△256	수익 감소
비용	-	-	-	128	약 2.5	+320	비용 증가
총 손익	-	-	-	-	-	△576	총 이익 감소

자료 : 언론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 시멘트 업계는 설비투자를 통한 원가절감* 등으로 영업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확대되는 추가 부담금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 ESS : 전력단가가 낮은 심야전기 활용, HRSG : 생산중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여 자체 전력 생산

○ 시멘트 업계는 ESS, HRSG 등의 환경설비투자를 통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있으나 추가되는 환경부담금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

설비투자별 원가절감 효과

(단위: MWh, 억원)

ESS		HRSG		비고
설치용량	원가절감 효과	설치용량	원가절감 효과	
10~48	12~60	16~44	33~257	국내 기업별 사례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 또한, 전방산업인 건설경기 침체와 맞물려 시멘트 수요 감소가 확대되고 있는 바 현 상황에서 환경부담금 및 국내 석탄재 수급에 따른 비용이 추가될 경우 경영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

□ 시멘트 업계의 경영 부담요인에 대한 주요 이슈별 이해관계자간 공감대 형성 및 협의를 통해 적절한 고통 분담 방안 도출이 요구됨

○ 지역자원시설세 등 환경부담금과 관련하여, 정부·국회 및 시멘트 업계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당 지역과 시멘트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국내 석탄재 대체에 따른 석탄재 운송비 부담은 시멘트 업계와 발전사가 적정한 선에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간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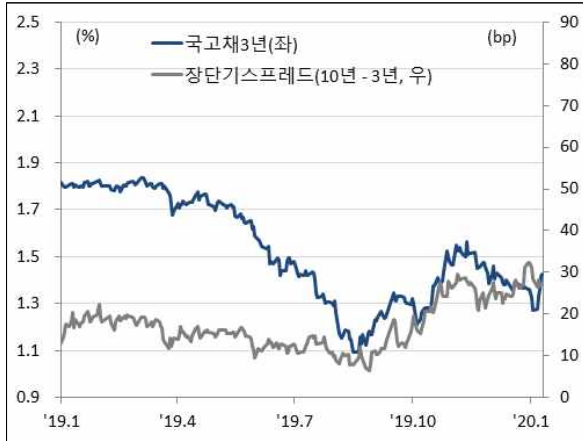
○ 시멘트 업계는 추가적인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가격 출혈 경쟁을 자제하고 시멘트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회복시키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현재 시멘트 업체간 시장점유율 경쟁으로 인해 실제 판매가격은 정상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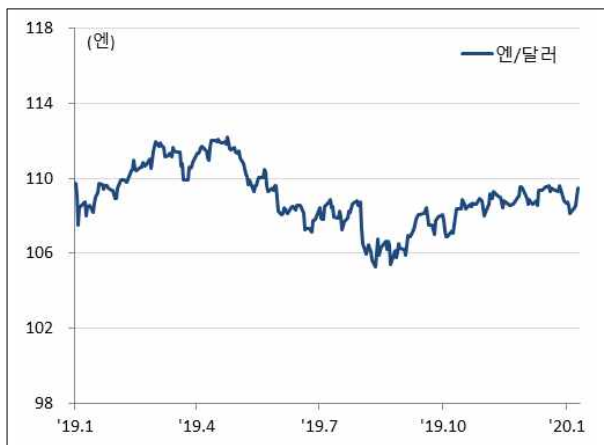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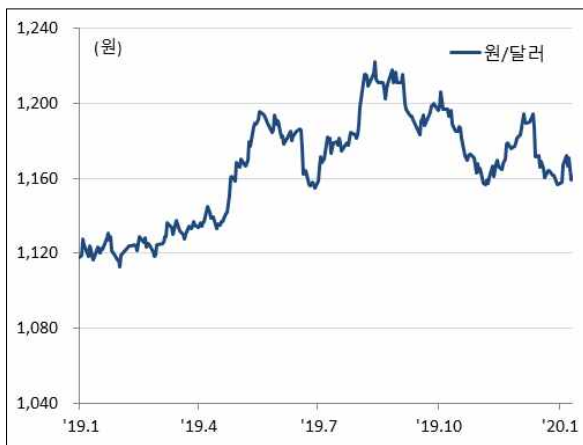
* 톤당 평균 64,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가격(75,000원) 대비 약 15% 할인된 수준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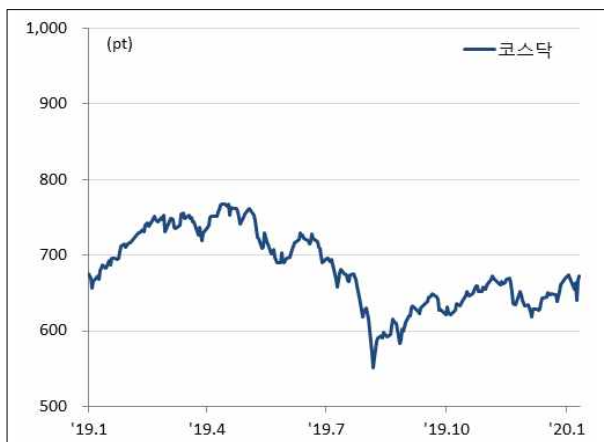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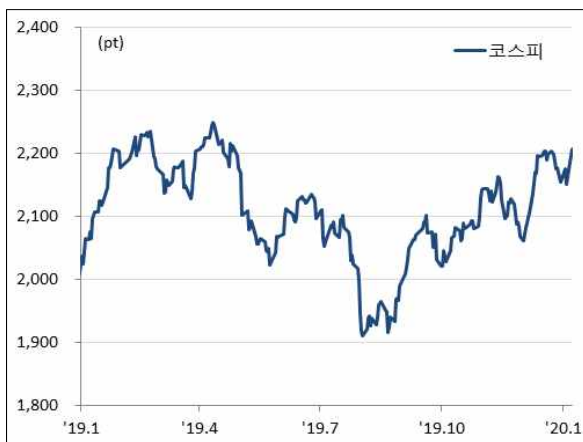
금 리 국고채3년 1.425% (15.5bp ↑), 신용스프레드 41.3bp (1.5bp ↓)



환 율 원/달러 1,161.3원 (5.8원 ↓), 엔/달러 109.5엔 (1.41엔 ↑)



주 가 코스피 2,206.39pt (1.38% ↑), 코스닥지수 673.03pt (0.46%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신용스프레드와 엔/달러는 목요일 종가 기준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862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26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